



**정원호 전은 노조위원장, 순창에 고향사랑기부금**

순창군은 2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북은행지부 위원장인 정원호씨가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개인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제20대 노동조합 위원장인 정원호 씨는 순창군 쌍치면 출신으로 전북은행 18대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19대 수석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전북은행은 지난 3월 순창군과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했으며, 전북은행 고객과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향사랑기부금 1,300만원을 순창군에 기탁하는 등 순창군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정원호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면서 "내 고향 순창이 더욱 발전할길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정원호 위원장님의 고향사랑이 지역의 발전과 군민 편익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오세현 오피코리아 대표,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

무주군은 (주)오피코리아 오세현 대표가 지난 20일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오피코리아는 지난 2012~2014년, 그리고 올해 무주반딧불축제에 대항하고 있는 업체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무주군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오세현 대표는 "무주반딧불축제를 통해 맺어진 무주와의 인연이 너무 소중한 애착이다"라며 "기부금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무주군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 되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증진사업에 뒷받침하는데 잘 쓰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3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무주반딧불축제에 환경축제의 면모를 살려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유익하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은 별초대행서비스 등 총 47종의 답례품을 마련하고, 관내 소외계층에게 농산물꾸러미를 선물할 수도 있도록 포인트 기부하기 상품도 준비해 기부로 형성된 가치가 재기부로 선 순환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 지역혁신센터, 공정무역 도서 대학에 기증**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는 20일 공정무역 도서를 대학 도서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더욱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로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 형태이자 사회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전주대는 공정무역 확산을 선도하는 공정무역 대학으로 공정무역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미래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날 기증식에 함께한 사회복지학과 김민경 학생(4년)은 "공정무역대학 학생으로서 공정무역 홍보와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기증 소감을 전했다.

공정무역대학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허문경 연구교수는 "공정무역 도서를 통해 대학 교육에 공정무역을 도입한 세계 시민교육의 취지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초의 공정무역대학인 전주대학교는 교육과 캠페인 국제세미나, 공정무역대학위원회, 공정무역제품의 교내 판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장은성 기자

**“세대 간 소통 촉진해 꿈과 희망의 미래를”**

박진배 전주대 총장, 슈퍼스타 어린이집 방문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은 한국전쟁 70주년을 앞두고 슈퍼스타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세대 간 소통'의 시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세대 간 소통'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과의 만남을 통해 역사의식과 더불어 이진 세대가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고생과 희생의 시간을 보낸 아이들을 나누며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7세 용기가족반 아이들이 총장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박 총장은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 하시는 업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등 유아의 눈높이에서 소통했다. 이후 아이들은 총장에게 노래와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박진배 총장은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며,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데 큰 관심이 있다"며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해 꿈과 희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슈퍼스타 어린이집 이은미 원장은 "전주대학교는 큰"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로자 복지를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모범적인 학교"라며 "미래 사회를 풀어나 갈 영유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슈퍼스타 어린이집은 사립대학교에서 전국 최초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2017년 개원해 그 해 전국 직장어린이집 The-자랑 보육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장은성 기자

**군산부설초, 나라사랑 프로젝트 수업 진행**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왕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라사랑 프로젝트는 비전위탁복 작성을 통한 나라사랑 마을 표현하기,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 찍기, 태극기 그리기 활동 등 3가지 활동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동안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를 실천하면서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알아보고,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호국 보훈 활동에는 뭐가 있는지 함께 찾아냈다.

또 안중근 의사의 손 테두리 안에 6학년 전체 학생의 손도장을 찍어보며, 나라를 위해 아무런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위대한 인물의 손길을 느껴보았다.

마지막으로 태극기를 직접 그리고 색칠해 보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나라사랑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나라를 위해 애써준 분들이 참으로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며 "그분들의 위대한 업적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생들이 손수 만든 작품을 보면서 한 학부모는 "군산부설초 학생들 모두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앞장서는 큰 일꾼으로서 자라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교육지원청-진안군청, 농촌유학 공동 워크숍**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경)은 20일 한드미마을에서 진안군청(군수 전춘성)과 농촌유학 공동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진안교육지원청, 진안군청, 농촌유학 협력학교 및 관심학교 교장 운영위원장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우리나라 최초 농촌유학을 시작한 단양 한드미마을을 찾아 농촌유학센터 운영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진안교육지원청과 진안군이 협력해 시작한 농촌유학은 2022년 10월 5가정 8명을 시작으로 현재 8가정 15명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 4월 진안군은 전라북도 1회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번 1차 공동 워크숍은 양 기관이 월 1회 실시하는 실무 협의회서 논의했으며, 추후 2, 3차 워크숍에서는 지자체 거주시설 증식 가족체류형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김호경 교육장은 "이번 공동 워크숍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어 생태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이 가능한 진안형 농촌유학 모델을 탐색하고, 진안을 제2의 고향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교육 실시**

진안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실과, 음·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려운 행정용어와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활용해 주민들의 군 정책 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홍보자료 작성 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하도록 강조하며, 외국어 및 외국문자 등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순화어를 사용하고 4대 어문규범 및 문법적 표현 준수와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공공언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반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 쓰기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비전대-제주관광대, 신산업 교육과정 공유 토론회**

전주비전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단(LINC 3.0)은 지난 19일 제주관광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신산업 기반 교육과정 공유·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비전대 최승훈 LINC 3.0 사업단장과 제주관광대 장예선 LINC 3.0 사업단장 외 각 대학의 교육과정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산업 분야의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각 대학의 노력과 진행현황을 공유했다.

양 대학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기반 교수학습방법 적용 △차세대 IOC운영 및 성과창출 계획 △유사 IOC간 공동 운영 프로그램 △ICC 산업기반 지역 정주형 취창업 인재양성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



**농어촌공 동진지사 원지력 안전교부세 신설 챌린지**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이종화 지사장은 20일 원지력 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 운동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방사선 방재법을 개정했다. 원전 반경 22~30km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전국 28개에 이른다. 하지만 원전 소재지 지자체 5개소를 제외한 23개 지자체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데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고창군과 부안군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법안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는 100억원 정도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제 소방서 전두표 서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동진지사장은 다음주자로 농협은행 임인 지부장을 지목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삼례초 박지훈, 아시아마켓 국가대표로 선발**

삼례초등학교 박지훈 학생(6년)이 제5회 아시아마켓 국가대표선발전 플라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국가대표에 선발됐다고 전했다.

박지훈 학생은 지난 18일 익산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선발전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에 앞서 5월 개최된 제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남자 13세 이하부 38~42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박지훈 학생은 "국가대표로 선발돼 매우 기쁘고, 앞으로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사회공헌사업 운영**

진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유정)가 6월부터 말까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운영한다.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운영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임을 홍보하고, 자원근로사업 참여주민의 자존감 향상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와의 상호연대와 협력망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노인 학대 예방·인권교육 실시**

남원시는 6월 28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노인복지 시설 및 노인 장기요양기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사이버교육 등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강사의 진행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침해 사례, 보호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수성 향상을 높여 노인 친화적인 살기 좋은 남원시를 만들고자 추진된다. /남원=김기두 기자